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	과 장 정인식 042-481-5168 사무관 손은정 042-481-5423 주무관 박기현 042-481-5175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9년 3월 8일(금) 배포(09:00)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「특허공제사업 추진단」 본격 출범

-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,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출범식 개최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3월 8일(금) 오전11시, 63스퀘어(서울 여의도동)에서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술보증기금(이사장 정윤모, 이하 '기보')과 함께 '특허공제 사업 추진단'을 본격 출범하고, '지식재산(IP) 기반 중소·중견기업 지원'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-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, 정윤모 기보 이사장과 함께 김기선 의원(자유한국당, 강원 원주시갑), 박정 의원(더불어민주당, 경기 파주시을)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.
-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·완화하기 위해 20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.
-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으로 기보가 선정되었고, 이번 출범식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.

- 공제는 가입자(중소·중견기업)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,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·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‘先대여 後분할상환’ 방식으로 운영된다.
- 또한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부금은 일정 비율로 적립되며,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한다.
- 특허공제사업추진단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용방법과 특허 법률 상담 등 가입자 대상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여,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‘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지원’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기보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기술이전·보호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강화·확대하기로 했다.
-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중소·중견기업은 비용 부담, 전문인력 부재, 역량 부족으로 지식재산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”면서, “이러한 환경에서 ‘특허공제사업’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해외진출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특허공제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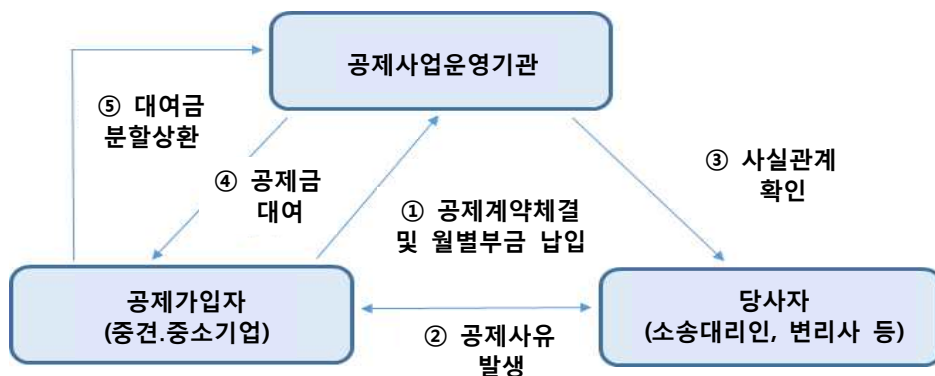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기현 주무관(☎ 042-481-51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 내용

- 지식재산 비용을 '先대여 後분할상환' 방식으로 지원, 중소·중견 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·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 제공
 - [공제부금 적립]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비율로 적립되며,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
 - [先대여 後상환] 가입자는 해외출원, 국내외 심판·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先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
- (공제부금 납입) 월별로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가입자의 업종·규모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차등화* 하여 편성
 - * 예시 : 30만원, 50만원, 80만원,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
- (가입자 목표) 7차 년도까지 2.6만개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하고, 납입 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수익 창출

<사업 흐름도>



□ 법적 근거

제50조의4(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·운영)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,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·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